

『제3회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 ‘술술이술술’』 참여작가 선정 발표

[제3회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 ‘술술이술술’]에 지원해주신 작가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전시에 함께 할 작가님을 안내드립니다.

2021. 6. 18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 최종 선발자 : 18명

강다솜, 강효경, 김송이, 문해주, 박정훈(박심정훈), 박지원, 손유화, 송채림, 심효선, 위영일, 유승연, 유혜란(유지연), 이말용, 이은정, 정승혜, 정현수(정수), 추유선, 홍준호

□ 심의총평

예술과 기술은 미학의 오래된 주제이면서 ‘이 지역’의 현실이기도 하다. 또 인간중심주의 이후를 다루는 포스트휴먼은 이미 테크놀로지를 내포한다. 이러한 동시대성을 작가들은 어떻게 다룰까? 흥미로운 물음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살펴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유익한 체험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대한 탐구와 그 방법론적 모색을 주로 살펴봤다. 전시 주제와 그 실현 계획에 이어서 그것이 구현되었을 때 드러날 예술성을 상상해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이번 공모에는 총 74명이 응모했는데 그 가운데 18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술술’은 기술과 예술이 함께 어울려있는 모양을 줄인 말이며, 이번 제3회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가 열리는 공간, 장소의 이름이기도 하다. 새롭게 개관한 술술센터에서 18명의 다채로운 작가들이 보여줄 세계는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2021.6.17.

심의위원 김병수(미술평론가), 이관훈(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 수석 큐레이터)

□ 향후일정

- 1차 워크숍: 2021. 7. 1. (목) 예정
- 워크숍 관련사항은 6. 23.(수) 개별 안내 예정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 담당자(☎02-2629-2212)